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자

-6월 6일 새벽 5시부터 홍해작전 개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롬4:18)을 주제로 2001 홍해작전 이 6월6일(수) 새벽5시에 개전된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할 이종운 목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비추어진 신앙을 오늘의 정황에 맞게 풀어 말씀을 선포케 된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도록 하자. 또한 죄악된 세상

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는 험한 파도가 치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지체하거나 되돌아 갈 수 없다. 돌아갈 장소도 없다. 이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홍해작전 진군 나팔소리에 발을 맞추어 행진하여 기도로 홍해를 깨뜨리고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승전가를 부르자.

2001 홍해작전 공동 기도제목

이스라엘을 부르시어 기도와 말씀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홍해를 건너 가기를 위하여 한 음성으로 기도하오니

- 1.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믿음안에 거하게 하소서
- 2. 하나님 앞에서 범한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 3. 구속받은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랑과 기쁨과 보람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소서
- 4.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새벽이슬 같이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 5. 경제적 궁핍과 육체적 질병과 관계의 파괴로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 6.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성령이여, 임하시어 우상과 불의가 타파되고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흘러, 새 생명이 움터 번영을 이루게 하소서

- 7. 믿음, 소망,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근면과 정직, 성실과 기쁨으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 8. 빛을 잃고 어둠에서 헤매는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 9. 제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생기를 불어넣고, 교회가 갱신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소서.
 - 10.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나누어 주며 자신에게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 11.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흥왕하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가 폭발되어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에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 12. 새 예배당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우리 교회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고 세계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치세미나 프로그램 확정되다

6월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김치 세미나에는 카메룬, 차드, 중앙아프리카, 자이레 등 중부아프리카 4개국에서 교계지도자 24명의 참석이 확정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매일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오전에 강의와 토의시간, 오후에 기독교 기관과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사회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들로 구성되었다. (일정표 4면 참조)

특히 한국교회의 새벽기도회는 매년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나타났지만 이번에도 홍해작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열심있는 열정적인 기도의 모습을 아

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함께 체험하게 되어 새벽기도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 될 것으로 보여 교육효과도 더욱 극대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김치세미나는 영접, 안내, 식당봉사 등 각 분야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번 김치세미나도 역시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운영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김치세미나에 참가하는 외국 교역자의 후원을 원하는 가정과 기간 중 각 부서에서 이루어질 봉사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제7대 장로 5명 픽택되다

우리교회 7대 장로 선거가 지난 5월27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있었다. 총 투표자의 삼분의 이 이상 득표자는 홍성주, 이복규, 이관규, 임상현, 김세제 집사 등 5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개월간 당회 지도하에 소정의 교육을 필하고 당회와 노회의 고시를 거쳐 오는 11월25일 추수감사주일 찬양예배시 안수를 받고 시무에 들어간다.



홍성주 집사 이복규 집사 이관규 집사 임상현 집사 김세제 집사

이번주 이모저모



- ① 공동의회 - 투표는 사람이 하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 ② 열렸다 하늘 문: 입당 감사 찬양제 - 하늘에 상달되는 찬양



구원자 하나님

(이사야 45:14 - 19)

이사야서 강해



❖ ❖ ❖ ❖ ❖

이종운 목사

❖ ❖ ❖ ❖ ❖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을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택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 이방인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에굽과 구스와 스바 3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논리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바울 신학을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다음에 이방인에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은 이방인에게 들어가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롬 11:25).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유대인이 회개하여 결국 세계만민이 구원에 동참함으로 대단원의 구원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14절). 에굽과 구스의 소독과 무역한 것, 그리고 스바의 장정들이 유다에 온다 함은 그 나라들이 메데 파사의 속국이므로 그들의 소유물이 고레스로 말미암아 유다에 바치는 것으로 회개의 참모습을 말합니다(에 6:8).

그러나 한편 14절은 신약 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재물을 바칠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나라 사람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이 유다의 종교, 곧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

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헛된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모든 것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종교를 대조한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15절).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인지 회개한 이방인의 말인지 분명치 않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는 나타내시고 이방인에게는 숨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방인이 경배하던 우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은 만져지는 신이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라는 것입니다. 그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숨어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비판'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천적인 이성(practical reason)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했고, 루소는 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나 이들의 말은 모두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자율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교통으로 그를 알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완전히 계시됩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① 창조주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② 하나님 아닌 피조물에게 의지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팔죽 한 그릇이라도 먹겠다고 장자의 축복을 던져버린 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로 하나님을 삼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멸망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17절). 이 구원은 외부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국가적인 구원을 말하고 내부적으로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여호와의 믿는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는 이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는 이유는 그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18절).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현재가 아무리 과학문명시대라고 해도 별들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의 과학은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18절). 지구는 거친 흙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조화가 있고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나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마 6:24). 세상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라나 여호와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19절). 하나님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손에게 그를 헛되게 찾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약속은 말씀대로 성취되고 그의 말씀은 의요 정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을 회개시켜 유다와 함께 구원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숨어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여호와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시는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월의 시 6월의 위대한 꿈을 꾸자

신동기 권사 (3교구)

새벽을 몰고 온
6월의
푸르른 비명이여!

흙 문은 빈손
성큼 들어
목마른 영혼 한줌
홍해에 뿌려놓고
아양게 새벽을 부풀린다

좁은 길로 가는
가난한 이들이여!
빠속 시린 맨발
순례의 발자국은
하늘로 이어지는
비장한 대장정이런가

깃발을 높이 들고
겹 없이 나아가는
아이들이아!
젊은이도
늙은이도
피 문은 가슴 활짝 열고
유월의 위대한 꿈을 꾸자

참으로
가슴벅찬
유월의 초여새!

바다를 호령하는
셋푸른 홍해의 새벽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눈물의 진동으로
바다가 몸부림쳐
바람벽이 세워지며
기적의 막이 오르는
구원의 땅!
생명의 땅!

너와 나 함께
나아가자
나아가자
새벽을 가르며
젓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기업장 탐방 - 가나기독교 백화점

- 최고 경영자 예수님을 모시고 -



90년 6월 6일에 결혼한 이양철 집사와 김미향 집사는 91년에 가나 기독교 백화점을 시작하여 4년을 이전하며 현재의 송파동 매장으로 오기까지 만 10년을 운영하고 있다. 말이 백화점이지 시작은 불과 2평 남짓한 남의 가게의 한 코너였다. 결혼 당시 소규모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이 집사는 결혼한지 석 달만에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 덜렁 사표를 냈고 후에 기독교 백화점을 시작하고 자리가 잡힐 때까지 떼거리가 없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 중매로 이 집사를 만난 김미향 집사는 정말 믿을 하나로 시집왔지만 앞을 못보시는 시아버지가 계시는 시댁은 눈물이 날만큼 가난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가나기독교 백화점은 남의 가게 한 구석에서 복사기 한 대를 들여놓고 교회의 후보들을 복사해주며 시작했다(그런데 정작 복사기를 들여놓고는 3개월 동안 한 장의 후보도 복사해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부활절이 왔고 처음으로 소품을 팔아 매장 50만원을 올린 날은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을 맛보았던다.

때로는 이웃에게 돈을 뜯기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여 눈물도 흘렸지만 차근차근, 조금씩 조금씩 가게의 평수를 늘려가며 장사의 재미를 느낄 때쯤(95년도) 김미향 집사에게 뜻하지 않은 병마가 덮쳤다. 병명도 희귀한 르푸스병(몸 속의 면역체계가 전혀 없어져버리는 이 병은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

이다). 그 때 김 집사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은 앞 못 보는 시아버지였다. 이 집사야 젊어서 결혼을 또 할 수도 있지만 누가 시아버지를 보살필까 하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사가 41장 10절 말씀을 주셨고, 혼수에 빠졌던 어느 날 누군가 자신을 안고 어디론가 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후에 안 것이지만 그 시간이 바로 권사회에서 자신을 위하여 칠악기도를 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김 집사는 그 이후로 될 수 있으면 중보기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 이 일로 그들 부부는 다시 한 번 거듭하는 체험을 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이 세상을 다시 산 것처럼 그들도 세상을 다르게 살리라 다짐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도 신기해서 IMF 한파로 모두가 가게 문을 닫는 판에 가나는 오히려 IMF로 인해 권리금이 없어진 70평 규모의 현재 매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소원해왔던 서적부까지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지역에서 손꼽히는 기독교백화점이 되었다.

그들에게 특별히 장사를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의 말처럼 최고 경영자이신 예수님이 경영을 하시므로 자신들은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신실할 뿐이다. 김미향 집사는 매일 첫 날에 각종 현금봉투를 서랍 속에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그리고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들 때일수록 감사생활을 힘껏 하라고 권면하고 싶다고 한다.

자신들이 살았던 모든 과정을 아시는 집사님들은 때로 "이 양철 집사 용 됐네, 돈 많이 벌었지?"하고 우스개 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조용히 웃을 뿐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용이 됐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루고 싶은 두 가지 꿈이 있다. 서울교회가 교육관을 짓는 날 그들은 거기에 도서관을 정말 잘 꾸미고 싶다. 그리고 오지에 나가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고국에서 공부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도 만들고 싶다. 혹시 '그 사람들 꿈도 야무지네' 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처럼 야무진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열심히 살고있다. 이양철 집사는 현재 8월에 태국 치앙마이로 가는 단기선교팀의 총무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허 숙 (편집부)

새로 왔어요 질서속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넘쳐요

정은경/이덕순/장기숙/장민정/음혜경 성도 /한혜자 권사

지금 까지 전 가족이등록 한 새가족 중심으로 인터뷰를 해 왔는데 포처럼 혼자 등록한 몇 분을 만나볼에서 만날 기회를 가졌다. 자타가 공인하는 무궁화 다섯 개 자리 호텔스카 이 탁은 저 수준의 전망을 가진 만남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식구들이 한술 밥을 먹는 곳이며 빈부나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한 상에서 한가지 메뉴로 대접받으며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작은 천국 레스토랑이다. 이들의 진지하고 긴 수다를 짧게 읊어본다.

정은경 성도: 자진해서 나왔는데 교회분위기가 차분하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조만간 남편과 아이들도 등록해서 한 교회를 섬길 거예요.

이덕순 성도: 새가족부를 수료한 분께서 권유해서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 동안 몇몇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이렇게 새가족 프로그램이 좋고 정이 넘치는 곳을 본적이 없어요.

장기숙 성도: 아이들과 저만 등록해서 다니는데 남편도 조만간 등록할 거예요. 큰 규모에 비해 질서가 있고 그 속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넘치고 특히 새가족에 대한 배려가 가슴에 와 닿아요.

강민정 성도: 담당 선생님이 젊어서 feel이 통하는 거 있죠.

음혜경 성도: 친절하고 너무 좋지만 계속 새가족부에 있을 순 없잖아요. 수료 후에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한혜자 권사: 3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서울 신대원에서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방송으로만 들던 목사님 말씀을 새 예배당에서 직접 듣게돼 기쁩니다. 아울러 모든 교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자랑과 수다를 들으면서 어느새 우리교회 사람들이 다 되셨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다락방 어느 하나 빠짐없이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서울교회의 귀한 구성원들이다.



제 9 차 김치 세미나 일정표

	6.5(화)	6.6(수)	6.7(목)	6.8(금)	6.9(토)	6.10(주)	6.11(월)	6.12(화)	6.13(수)	6.14(목)	6.15(금)	
5:00	새벽기도회											
6:00												
7:00	개인별 경건의 시간											
9:30	조 식											
10:00	개회예배 (이중윤 목사)						장신대 방문					
10:50	Lecture I 이만열	Lecture II 이중윤	Lecture III 김상복	Lecture IV 김명혁	주일학교 참관	Lecture V 이광순	Lecture VI 이중윤	Lecture VII 이원철	Lecture IX 김영한			
11:10	휴 식											
12:00	토의	토의	토의	토의	예배	토의	토의	토의	토의	공방 출발		
13:00	중 식											
15:00	시내관광	교회 탐방	기독교 대학 방문 및 극동 방송국 방문	기도원 방문	주일학교 참관 사랑부 13:00~13:30 청년부 16:10~16:40 저녁예배	목회자 세미나 참관 롯데월드 방문	대한 성서공회방문	Lecture VIII W.T.W.Fon	Lecture X 김인수	폐회예배		
18:00	환영민찬			석 식					석 식			
19:00	등록	수요예배 및 자유시간	국가별 전략 회의	다락방 참관	자유시간	명상의 시간	가정 방문	교계지도자 초청민찬	수요예배참석			
20:30												
21:00												

동 정

- 6월 중 행사**
- 6. 2(토) 제14회 기독교학생 성가 축제 (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 6. 3(주) 고등부 헌신예배, 교육위원회
 - 6. 6(수) 제9차 김치 신학 세미나, 흥애작전
 - 6. 10(주) 전도위원회
 - 6. 17(주) 교구위원회
 - 6. 20(수) 학습세례식
 - 6. 24(주) 새 가족환영회, 찬양위원회

- 윤준구 집사 안정옥 권사 목회자 세미나, 김치 세미나 셔츠 240벌기증
- 광주 벨엘 교회 김옥순 오이 1박스 기증
- 남형원 성도 이은미 성도 (9교구) 특납
- 장윤기 성도 노애리 성도 (6교구) 특녀
- 성춘모 집사 정희자 집사 (12교구) 수지로 이사
- 전원순 집사 장경술 성도 (12교구) 수지로 이사
- 장희원 집사 박승희 집사(12교구) 수지로 이사
- 이기원 집사 (10교구) 길동으로 이사
- 한충현 집사(2교구) 5월 31일 서울 교육방송 개업
-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조응식 집사 유명석 권사 (은혜중 결혼식을 마치고)
- ☑ 목회자 세미나 간식 제공 가정 : 이복규 집사 한명순 집사

김치 세미나에 도움주신 가정 - 임상현 집사, 오유식 집사

전도자	태신자
70인 전도대	김수진, 박미선, 신은경, 윤선이, 장원상, 백중현, 백중호, 이희권, 박민정, 박진원, 김종기, 김민희, 이정아, 이은실, 정해자.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 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제19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9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